

함경북도 귀양 나덕명, 죄인 신분으로 의병 일으켜

新 호남 義兵 이야기 <7> 전란 속에 빛난 선비들의 네트워크 ②

광주일보 '의병열전(1975.12.1~1977.7.21)'에서 등장하는 임진왜란 의병장 34명은 상당수가 당시 최고의 학자들을 스승으로 모셨으며, 동문수학하거나 어울렸던 이들과 함께 거병했다. 의병장은 모두 양반들이 맡았다. 이들은 지역 내외에서 동문수학한 벗, 스승 등과 오랜 시간 다져온 친분과 의리로 맺은 네트워크를 통해 의병을 모으고 군량미를 확보했으며, 전투와 관련 각종 정보를 얻었다.

각지와 연계하며 지역 지킨 의병장들

전라좌수사 이순신 장군과 함께한 최대성 의병장과 두 아들 언립·후립 김경수, 장성 남문에 의병청 설치 전주 의병장 이정란, 전주성 사수 위해 정협·윤계 종사관으로 삼아



보성군 득량면 마천리 마동부락 455번지 오봉 정사제의 생가. 1975년 광주일보 취재 당시 12대손 정종암씨가 거주하고 있었으나 46년이 지난 지금은 14대손인 정상호(75)씨 부부가 살고 있다.

전투에서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종제인 전 판관 김신남, 그의 아들 극후, 극순, 문하에 있던 김언희 등을 거느리고 장성 남문에 의병청을 설치하고 각지에 격문을 보냈다. 같은 달 19일 기호련, 윤진, 장성현령 백수종 등이 찾아왔으며, 8월 18일에는 전주의 의병장 이정란이 찾아와 군사를 합치자는 제안을 했지만,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군자금만 주고 되돌려보냈다. 기호련, 박환래 등이 의곡을 가져 오겠다고 제의하기도 했으나 군량과 군사가 미흡해 거병에 어려움을 겪었다. 8월 29일에는 찾아온 선비들 돌려보내기도 했다. 그러던 중 9월 16일 김홍우가 의병 60여 명, 군량 20여 석, 말 7필, 소 3마리를 보내오는 등 11월 들어서면서 장성 남문으로 의병과 군량미가 몰려들자 11월 17일 제단을 쌓고 맹주로 추대됐으며, 의병장은 전투 경험을 가진 오봉

김제민이 맡도록 했다. 열사 최옥의 거병에는 양반보다는 주로 이름 없는 백성들이 상당수 참여했다. 최옥은 자신을 따르던 300여 명의 의병을 장정 중심의 1진, 어린이와 부녀자 2진(보급대), 노인인 3진(후방 지원)으로 분류했다. 영암에서 거병해 울치에서 진을 치던 김덕흡에게 구원 요청을 받고 이동중에 왜적을 만나 전사했는데, 당시 선수라는 이름의 어린 하인이 가매장했다가 나중에 선영으로 이장했다. 소포 나덕명은 승훈랑 임금부도사로 있던 1589년 정여립의 난에 연루돼 함경북도로 귀양을 갔다. 그는 죄인 신분으로 의병을 일으켰다. 이 대열에 지달일, 최배전, 오박, 강문우, 김사주, 정경룡, 오응태, 나정언, 유경천, 오대남, 이상임, 최동망 등이 합세했다. 나덕명은 김주성 밖으로 나와 약탈하는

왜적 1000여 명을 원충서, 한인제 등과 기습해 왜적 800여 명의 머리를 베었으며, 포로로 잡힌 남녀 백성을 풀어주고, 말 100필을 되찾았다. 또 책성에서 400여 명의 왜적이 나오는 길에 매복해 함이랑, 강문우, 박근수, 이언포 등과 싸웠고, 충남 서천군 수의 요청을 받고 서천을 구원하기 위해 가던 길에는 구황, 박은주, 인원침, 고경민 등이 함께 했다. 충경공 이정란은 전주성을 결사 사수하기 위해 거병한 뒤 정협과 윤계를 종사관으로 삼았다. 김계군수 정담과 해미현감 변응정에 격문을 보내 협조를 요청했다. 웅치대혈전에는 나주 판관 이복남, 의병장 활박이 등도 참여했다. 표의장(彪義將)심우신은 24세에 무과에 급제한 뒤 선전관에 임명돼 25세에 왕명으로 영광에 출장을 가다 그곳에서 만난 선무랑 임식의 딸 장흥임씨

와 혼인했다. 임식은 수천석의 부자로, 천여석을 거둘 수 있는 농토를 받기도 했다. 임란이 발발하자 처남 임두춘과 함께 정충훈, 김부행, 최인, 박연준, 김보원 등의 호응을 얻어 거병했다. 장인에게 받은 농토를 모두 처분, 병기와 군량을 마련한 뒤 왜적과 맞섰다. 고봉 기대승의 맏아들인 함께 기호증이 나주에 의곡청을 설치하자 영광 이광중, 남평 송기원, 광주 이운홍 등이 모여 그를 의곡장(義穀將)으로 추대했다. 기호증이 모아 의주의 선조에게 현남의 의곡 3200석 가운데 1200석은 이운홍, 이근, 이분, 이웅중, 오귀영, 이희룡, 송약선, 이현, 임수춘, 이안현, 이의남 등 18인 의사가 모은 것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사진=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임란 의병장들의 스승과 동문들

고경명은 울곡 이이의 종사관으로 명나라 사신을 접대했으며, 송강 정철의 추천을 받아 58세에 승문원 판교와 동래부사를 마지막으로 벼슬을 내려왔다. 김천일은 조선 중기 성리학의 거두인 일재 이항과 장성에 은거하던 하서 김인후에게 글을 배웠다. 우계 성혼에게 당파싸움을 경계할 것을, 울곡 이이에게 밝은 정치 풍아 한다는 편지를 보내는 등 이들 과도 인연이 깊었다. 소포 나덕명은 울곡 이이의 문하에 있다가 학자 이면서 영의정까지 지낸 사암 박순의 추천을 받아 벼슬길에 올랐다. 오천 김경수는 하서 김인후의 문하에 있었으며 울곡 이이, 고봉 기대승, 송강 정철, 제봉 고경명 등과 글로 문교 토론하며, 후학들도 각 뜻이 존중하는 자세를 보였다. 도탄 변사정은 27세에 태인에 은거중인 일재 이항을 찾아가 제자가 되기를 간청해 입문했다. 그곳

울곡 이이와 함께 '양병론' 주장 삼봉 이세근 퇴계 이황을 평생 스승으로 모신 오봉 정사제

에서 기대승, 김천일, 기호련, 박광욱, 정엽, 양대복, 하맹보, 김점 등 호남지역 젊은 선비들을 만나 학문과 시국을 논의했다. 최경회는 조선 중기 시인이자 서예가로 이름이 높은 백광훈과 같은 인재를 배출한 송천 양응정에 3년간 글을 배웠다. 오봉 정사제는 현학처사 정근에게 10살부터 4년간, 이후 경북 안동에 있는 퇴계 이황을 찾아가 3가지 교훈을 얻고 평생 스승으로 모셨다. 당시 퇴계 이황은 "학자는 모름지기 효제충신(孝悌忠信, 효도·우애·충성·믿음), 겸공절약(謙恭節儉, 겸손·공경·절약), 침잠독실(沈潛篤實, 침착·차분함·독실)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정사제는 임계영에게 자신은 늙었다며 의병장을 양보한 죽천 박광전도 스승으로

삼았다. 괴정 최시망은 고봉 기대승, 모의장 최대성은 죽천 박광전, 퇴은당 엄결은 김광준의 문하에 있었다. 해광 송제민은 토정 이지함과 친분이 있어 중봉 조현을 찾아가 난세의 의견을 구하고, 울곡 이이를 지지하는 상소를 선조에게 올리기도 했다. 미암 유희춘의 천거가 있었으나 사양했다. 삼봉 김세근은 중봉 조현의 문하에서 공부한 뒤 울곡 이이와 같은 양병론을 주장했다. 흥민인·흥민성도 중봉 조현의 제자들이다. 습정 임환은 김천일과 교류했으며, 충민공 양산숙은 조선 중기 문신이자 학자인 우계 성혼의 밑에서 배웠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1593년 음력 7월 12일 형제의병장 중 흥민인이 아들 흥시정과 함께 나주로 쳐들어온 왜적과 맞서 싸운 300여 명의 왜적을 참살하고, 포로로 붙잡힌 백성 152명을 풀어주는 대승을 거둔 남평 드들강 전경.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국제보청기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앞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